

지역 매 아리

무주군, 치매도 걱정 없어요

안성 외당 · 부남 가정마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

무주군은 안성면 외당마을과 부남면 가정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안성면 외당마을에서 열린 행사에는 황인홍 군수와 유송열 군의장, 황의탁 전북도위원을 비롯한 내빈과 마을주민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군은 안성면 외당마을과 부남면 가정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하고 30일 현판식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군 치매안심마을이 첫 선을 보이는 날"이라며 "군민여러분과 약속했던 치매 걱정 없는 마을 조성 사업 추진의 과정이자 우리 군민의 노년을 뒷받침할 든든한 의지처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이 크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치매안심마을이 더 많아져 우리 군이 치매 친화지역이 되고 주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치매안심마을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발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성면 외당마을과 부남면 가정마을은 고령화와 치매환자비중, 지역자원의 활용, 운송구도의 적절성 등 전방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치매예방 및 관리의지가 강해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

또 안성면 외당마을은 사회적응업참여마을이자 마을로 가는 축제 개최지로서 경로당과 보건진료소, 목공 작업장 등이, 부남면 가정마을에는 경로당과 보건진료소, 장애인생활시설, 초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는 등 활용 가능한 지역자원과 행사 등이 다양해 선정마을들 중에서 주목을 받았다. 두 마을 다 60세

이상 주민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조수현 센터장(보건의료원 원장)은 "치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게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초고령사회가 된 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정책과 프로그램들로 치매 친화적인 무주군을 만들어 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에서는 매주 2회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치매선별검진과 교육을 실시한다. 치매의심환자는 의사에게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할 방침이다. 또 지역 전체에 치매 친화적인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치매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마트와 은행, 병원,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을 치매파트너로 양성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사례관리와 가족지원에도 주력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4월 말 현재 65세 이상 무주군 전체 인구는 7767명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2018. 8. 개원)에 등록된 환자는 66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진단 및 감별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뿐 아니라 치매환자 워터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자조 모임 시에는 동반 치매환자보호서비스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반디의 꿈 산골생태 무주이야기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계획 보고회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계획 보고회가 30일 무주군청 전통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23회 축제의 추진방향과 공간구성계획 등을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대의원, 반딧불축제 지원단원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보고자로 나선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 실행위원장 박은은 "무주반딧불축제가 지난 20년 간 '친환경' 비전을 가지고 대표축제까지 왔다면 새로운 20년은 '산골생태'로 글로벌축제 도약을 해야 한다"라며 "제23회 축제는 무주군의 문화생태계와 도시브랜드를 구축하는 축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축제로 만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축제비전을 주민과 방문객이 충분히 함께 공유·공감할 수 있도록 축제공간과 콘텐츠, 환경 등을

제작·연출하고 아간 체류형 축제로 시공간을 확장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제장 전체를 도시 숲마당(무주읍)과 생태하천마당(남대천), 생태체험마당(예체문화관 일원), 생태 숲 마당(반딧불이 서식지)으로 구성하고 생태거리예술제를 비롯한 반디팝파티, 남대천생태방류체험, 신비탐사 등 공간별 주요 프로그램들을 보고해 관심을 모았다.

황인홍 군수는 "모두가 인정하는 대표축제로서 내실을 기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며 "올해는 총감독제가 도입이 되어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는 만큼 모든 과정과 절차, 프로그램 면면이 생태환경축제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말했다.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를 주제로 하는 제23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산림 패트론팀 운영

진안군은 주택 및 농경지,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 의한 산림재해로부터 적극적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산림 패트론팀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진안군 산림 패트론팀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된다. 주요 임무는 크레인, 굴삭기 등 각종 산림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강풍 시 주택으로의 도복 위험목, △농사에 피해를 주는 지장목, △차량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고사목의 제거 등이다.

군은 지난해 총 182개소 주택, 도로변 등의 위험목 300주를 제거하였고, 올해 현재까지 44개소 96주의 위험목을 제거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위험목으로 잘려진 나무는 수집 후 적당한 크기로 조제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팔개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0가구에 총 60톤을 팔개로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100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 패트론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진안군청 산림과 경관녹지팀(063-430-2442, 8688)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수목제거 대상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판단 후 신속 처리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저소득층 자활근로 대폭 확대

하반기 3개 신규 사업 시작해 40명 일자리 창출 계획

진안군은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지립을 위해 총 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활근로(내일희망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현재 진안군에는 6개 자활사업단에 62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인원이 382명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이에 진안군은 하반기부터 3개 신규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40명의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은 △출장세차 △청년포차(베트남 쌀국수·나이스호프) △휴먼퍼(말뚝, 간병, 가사정리 등)로 기존의

농산물 처리 등 단순 근로와는 차원이 다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진안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활근로 신규사업단 설치 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기능보강비를 지원하여 자활근로 사업단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진정한 복지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진안군은 저소득층의 자활지립을 위해 100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농촌중심지활성화 추진위 워크숍

장수군은 지난 29일 잠계면 전복기야 문화원에서 장수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중인 6개 읍·면의 통합 발전을 위한 지역별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공유, 행정과의 질의응답, 건의, 제안 등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같은 과정은 "장수군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각 읍·면 추진위원회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가 같은 뜻을 가진 서로 간의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남수(사)장수지역활력센터 이사장은 "오늘 워크숍을 통해 행정과 지역별 추진위원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군은 지난 2015년 번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추진 중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폭염대응종합대책 총력

장수군이 '2019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폭염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해 취약지역과 시설 정비 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폭염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노인 돌봄비, 방문건강 관리인력, 자율방재단, 이장 등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독거노인 방문 건강 체크와 안부전화하기 등을 추진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 홍보해 여름철 폭염으

로부터 취약한 학생 및 건설 산업 현장 근로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무더위쉼터 29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시설 점검을 마무리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군민들이 이동이 많은 곳에 그늘막 및 아트차일 24개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추가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상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범죄예방 환경개선 완료

진안군은 30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진안을 연구동 일원이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골목길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연구동 일원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오래된 건물들로 인하여 범죄가 우려됐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전복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2억원 중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최근 정비를 마쳤다.

이번 사업으로 연구동 일원에 보안등과 CCTV를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 없는 동네로 개선했다.

또한 건물외벽과 담장에 벽화그리기로 아름다운 골목길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통학생들에게 불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